

# 광주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광주시가 2008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광역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일반행정 ▲환경산림 ▲문화관광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 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별시·광역시, 도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광주시는 9개 부문 가운데 '가'등급 4개 부문, '나'등급 4개 부문, '다'등급 1개 부문으로 종합 1위를

9개 부문 중 일반행정·문화관광 등 4개분야 1위  
전남도, 지역경제·지역개발 등 2개부문을 1위

차지했다.

시가 특·광역시 가운데 1위 차지한 것은 그동안 시가 녹색환경조성과 재정 조기집행, 문화예술 활성화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가를 주관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은 광주시가 올해 4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가장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08년 1년 동안 수행해온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부처합동으로 실시했다.

평가 대상은 20개 부처 9개 분야 74개 시책(455개 세부 지표)이며, 지난해 3월25일~7월31일까지 온라인 공개시스템(VPS)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한편, 광주시는 2008 정부합동평가에 앞서 실시된 경제살리기 3대시책 평가에서도 재정조기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시민생활안정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인 가등급을 받았으며, 일자리 창출 분야는 나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합동평가는 대외 평가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평가라는 점에서, 광주시가 4개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광주시정의 우수성을 정부에서도 인정한 것이다"고 자평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지난달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압승을 거둔 히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총선 승리후 기자회견 중 당선자 명단을 배경으로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日 히토야마, 정권 인수 본격 착수

민주 308석 확보 압승...단독 정부 구성  
'일등공신' 오자와 당 요직 중용 가능성

8·30 일본 총선을 역사적 승리로 이끈 히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나섰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개표결과 총 480석 의석 가운데 308석을 확보, 119석을 얻는데 그친 자민당을 대파했다. 민주당은 과반수(241석)를 훌쩍 넘는 의석수를 확보,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위한 법적인 공중을 거치고 4년간 차분하게 준비해 오는 2014년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히토야마 대표는 지난달 31일 간 나오토 대표대행, 오카다 가쓰야 간

사장 등 당료들로 '정권인수팀'을 출범해 내각과 당 인사, 국가전략국 등 새로운 조직 구성, 추경 및 내년 예산 등 시급한 현안 파악과 업무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히토야마 대표는 지난달 30일 밤 방송사 출구 조사 등으로 압승이 기정사실화한 뒤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 간 대표대행, 오카다 간사장 등과 정권 인수에 대해 협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민당에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에 협조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집권 자민당과의 협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인플루엔자와 재해, 지진 등이 맹위를 떨치는 상황인어서 핵심 현안 위주로 사안의 진전상황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의 일등 공신인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의 중용 가능성과 관련 "선거에 공적이 있는 만큼 내년 참의원 선거를 포함해 오자와씨에게 어떤 일을 맡길 것인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내년 7월 참의원선거에 대비해 선거에 수완이 있는 오자와를 당 요직에 중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히토야마 대표는 이날 중순에 특별국회에서 총리에 지명된 뒤 23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 /연합뉴스

## “정기국회 후 도지사 출마 결정할 것”

주승용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여수·순천·광양 통합 원칙적 찬성”



그는 또 “9월 정기국회에 등원, 원내외에서 (대여)투쟁을 하기로 해 내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민주당 주승용 전남도당 위원장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한 달여간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민심탐방을 해 온 주 위원장은 민생탐방을 마무리한 자리에서 전남도정의 일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전남 관광과 지역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사실상 전남

도지사 출마의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낳고 있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정치인은 광역단체장과 대통령 꿈을 꾸는 게 당연하다”면서 “한 달 동안의 민생 행보에 대해 도지사 출마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행보를 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 “지방 소비세 도입 땀 재정 파탄 초래”

성경룡 前 규발위원장 '무너지는 균형발전' 토론회 주장

이명박 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 소비세 도입은 결국 지방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지는 균형발전,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종합 토론회에서 전 국가균형발전위원

장을 역임한 성경룡 한림대 교수는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역 간의 재정수입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력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균형발전법의

사실상 폐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무력화 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연 등에서 보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수도권 일극집중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홍현호 시민경제연구소연구위원은 현재의 감세로 가면 4년간 약 65조원의 지방재정부족분이 발생, 이를 지방소비세 신설이나 4대

강 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하면서, 지방교부금 우선 확충을 통한 지방불균형해소 장치의 복원과 덴마크식 일자리 나누기 등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체보다 보완, 사장(死藏)보다 활용, 집권보다 분권, 단순보다 다양, 답습보다 창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F1 프로젝트 파이낸싱 마무리

전남도, 오늘 1980억원 약정식...경주장 건설 급물살

내년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주장 건설 비용 마련을 위한 1천900억 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마무리됨에 따라 F1경주장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남도는 1일 낮 12시30분 영암호텔현장에서 경주장 건설 등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PF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PF 참

여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농협, 광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한화투자신탁, 복심자생명, LIG손해보험, 신한캐피탈 등 9곳이 참여한 다. 한화투자신탁은 대한생명과의 알리안츠, 한화손보 등 3곳이 펀드를 구성, 참여한다.

F1대회 개최에 필요한 PF는 경주장 시설비용 1천640억 원과 내년 열리는 1차 대회 개최권료 340억 원 등 총 1천980억 원으로, PF 참여사들이 이를 나눠 투자하게

된다. 신한은행, 농협, 광주은행 등 카보(F1대회 운영법인) 주주 금융사가 30%, 한화투자신탁이 25%를 각각 투자하고 나머지 45%는 5개 금융기관이 분담한다.

이들은 차관단인 신디케이트(Syndicate)를 구성한 뒤 차관단에 참여한 각 금융기관이 자금을 분담, 같은 조건으로 대규모 중장기 자금을 빌려 주는 공동융자형식의 신디케이트 대출(Syndicated Loan)을 활용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7.5% 안팎으로 결정됐으며, F1대회 경기장 부지와 시설물 등은 대출담보로 제공되지만 F1대회가 모두 끝나고 경기장 기부채납이 이뤄지면 담보를 풀기로 했다. /총행기자 redplane@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ELISIA)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woman and text describing a beauty or health product. Includes a phone number 06-671-1199.

Advertisement for '제88기 KPC경영진단사' (88th KPC Management Consultant Course) featuring a photo of people in a meet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한국생산성본부 (Korea Productivity Center) and the website www.kpc.or.kr.